

##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추진 배경

최근의 지식화 세계화되어 가는 건설기술 환경의 변화는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에 부합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국내의 주요 정부부처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2000년에 「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의 추진기간이 2002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1, 2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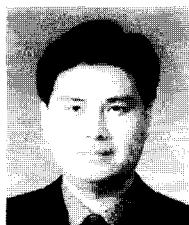
리법 제3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연구성과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Action Program)을 수립,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평가 중에 있다.

1991년에 수립된 「제1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의 소홀로 추진이 미흡하였으며, 1997년 「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조기 종료되었다.

「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건설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제도개선 계획을 강화하였다.

한편, IMF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위축 되는 등 국내 외 건설기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2000년 2월 「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다.

「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은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의 경쟁력



지상욱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그룹장

제1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1991년~2000년)

1991년

제2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1998년~2002년)

1998년

1998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1999년

1999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제2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  
(2000년~2002년)

2000년

2000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2001년

2001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2002년

제3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2003년~2007년)

제고, 기업의 핵심기술력 강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시 국내 외에서 부각되었던 디지털 경제, 지식정보화, 친환경 건설 등 새로운 미래 기술수요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 1. 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실적

건설사업 입찰을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설계 시공 일괄입찰제도」의 중장기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Pool 명부」 마련하였으며, 현재 약 2천 여명이 등록하였다.

기술경쟁을 제약하는 표준품셈에서 실적공사비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표준공종분류체계」 제시를 통해 수량산출기준에 의한 내역체계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의 경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대형공사 대안입찰 참

가, 기술 용역 평가 및 PQ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하였다.

건설산업의 지식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 「건설 CALS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향후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상응하도록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기술역량과 투자능력을 유도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가 용이하도록 국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현황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수립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정부 업계 대학 연구소 협회 등의 기술정책 전문가 약 90여명으로 실무추진단(단장 : 유승화 기술안전국장)을 구성하였다.

실무추진단은 총괄실무지원반과 실무추진반으로 구성된다.

실무추진반은 「정책평가 예측 분석」, 「건설전문인력」, 「생산시스템」, 「환경 안전」, 「건설정보화」, 「건설엔지니어링」, 「건설 R&D」 7개 추진반으로 구성되며, 각 추진반은 중점 추진과제 도출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분과별 역할 또는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 건설기술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소관 부처(부서)의 계획을 리드하고, 건설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건설산업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는 계획 수립부터 중점 추진과제 수행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을 명시하여 계획의 추진력을 제고하고,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계획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감 있는 계획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10월 중순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최종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12월 중순, 중앙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분 과	주요내용
• 정책평가 · 예측 ·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평가</li> <li>-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li> <li>-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종합조정</li> </ul>
• 건설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의 수급 안정</li> <li>- 표준경력관리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평가</li> <li>- 전문인력양성체계</li> <li>- 건설전문인력의 인식 전환</li> </ul>
• 생산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보증 · 관리체계 개선</li> <li>- 건설 생산성 향상</li> <li>- 입찰 · 계약 · 발주제도 개선</li> </ul>
• 환경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건설공사관리체계 강화</li> <li>- 국가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강화</li> </ul>
• 건설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CALS/EC 체계 확산</li> <li>- 건설정보 인프라 구축</li> <li>- 건설정보화 지원 및 촉진</li> </ul>
• 건설 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엔지니어링의 국제경쟁력 강화</li> <li>-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의 네트워크 구축</li> <li>- 기술경쟁방식의 제도개선</li> </ul>
• 건설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 선진화 연구개발</li> <li>- 민간 건설기술 R&amp;D 활성화</li> <li>- 산 · 학 · 연 R&amp;D, 건설기술 연구기관 활성화</li> <li>- 신기술, 시험 검사, 기술이전</li> </ul>